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1년도 제3호

이라크 모술, 폐허 더미 한가운데 날아오르는 평화의 상징
© Vatican Media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이며,
모든 개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자신을 맡길 때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이라크 사목 방문 중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의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2021년판이 세계의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온라인 컨퍼런스 등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ACN은 왜 2년마다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은 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ACN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대한 권리가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며, 인간의 본성에 그 근원이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조사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존중받거나 침해받는 전 세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인간의 권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이 이를 지지하는 토대로 받아들여지려면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읽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억압당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CN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자비로운 후원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멕시코의 복자 콘치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외면하여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 새로운 성령 강림’을 청하여라. 온 세상이 성령으로 향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을 위협하는 악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 영적 회개와 함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자이자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실 것입니다(요한 14,26 참조). 성령은 우리 영혼의 영이시며,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가 간절히 찾고 있는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입니다. 한 사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한다고 강론하십니까?” 사제는 대답했습니다. “내게 갈라진 틈이 있어서 새 나가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심이라는 틈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배에 큰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마르 4,41) 창조주를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고 있습니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때에 우리에게 새겨진, 우리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하는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날인을 얼마나 생각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하느님 자녀들의 확신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요한 15,26)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 근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리의 개념은 실제적으로 포기되었고, 진보와 실용, 계산, 선의의 개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의 영적 스승인 사로프의 성 세라핌도 이와 비슷하게 단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이해심의 근원적인 소박함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계몽으로 인해 우리는 불확실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옛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해했던 하느님의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생명이 어디에 있고 해악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게 하는 완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느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진정한 ‘이성’이며 그 이성이 사랑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간중심적 문법을 뒤집는 헌신적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인간에게는 ‘나-너-그’라는 문법 순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하느님-당신-자신’이라는 성령 강림절의 문법이 적용됩니다. 모든 것을 안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 형제자매들인 ‘당신’이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의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자 고유한 나라는 ‘자신’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령의 신부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소서.”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선교의 길

부활 성야에 사제는 세례수를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태초에 성령께서 물 위에 머물게 하시어 그때 이미 물이 거룩하게 하는 힘을 지니게 하셨나이다.”

교리에 따르면 물은 세례의 신비, 구원으로 가는 입구를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여기에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물은 선교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심장부에 위치한 코아리 교구 내 5개 본당 중 4개 본당이 강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 강을 건너지 않고는 그곳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설정된 이 교구는 보트 8대, 자동차 1대와 오토바이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명의 사제가 약 30만 명의 신자들과 자주 만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낡고 무거운 나무배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가기 때문에 더 가볍고 연료 소비가 적은 알루미늄 보트로 교구의 배들을 하나씩 교체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보트로 사제들은 선교의 길을 훨씬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구장 마렉 마리안 피옹테크 주교는 “우리의 사목 활동에는 보트가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도 여러 신형 종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때 사제의 방문이 신자들의 영혼을 구하고 또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나자렛의 성모 마리아 본당은 낡은 나무배인 자카냥호를 처분하고 디젤 엔진과 주방 설비, 에어컨, 전기 발전기를 갖춘 길이 16m, 폭 4m의 알루미늄 보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본당의 사목팀이 몇 주씩 계속 보트를 타고 돌아다니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보트 구입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ACN이 약 6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서의 선교 사명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싱구 알타미라 교구장 주앙 무니스 알베스 주교와 산타 테레지나호의 선원들



점검 및 수리 중인 산타 테레지나호

싱구 알타미라 교구에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본당이 있습니다. 거대한 강줄기의 기슭에 주로 토착 원주민들이 삽니다. 본당의 산타 테레지나호가 강가에 정박하면, 그곳 어린이들이 달려와서 며칠 동안 세례를 받고 교리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신 것처럼 말입니다(루카 5,3 참조).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본당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400개가 넘는 강가의 소공동체를 사목합니다. 상당수는 열대우림 깊숙한 데 있으며, 본당 중심으로부터 최대 1,000km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모든 민족들”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하지만 일부 공동체는 다음 미사까지 2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교리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활동하지만, 사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 사제에게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배가 필요합니다. 산타 테레지나호는 현재 점검 후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있습니다. 가난한 본당 형편을 크게 웃도는 수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에 ACN은 약 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물 위를 감돌고 있을”(창세 1,2)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심장을 관통하셔야 할 때입니다.



너무 낡아 더 이상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한 자카냥호



건조 중인 새 알루미늄 보트



교회의 원동력



콩고 민주 공화국 동부는 30년간 전쟁과 약탈, 테러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치안 상태는 여전히 위태롭고 빈곤이 만연합니다. 당국은 실패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신학생들

부템보 베니의 성 옥타비우스 신학교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학교는 가능한 독자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 합니다. 이곳에는 신학생 93명과 그들을 이끌고 돌보는 사제가 6명 있습니다. 신학교는 60km 떨어진 농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며, 추후 외래 진료소와 초등학교도 세울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그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신학생들이 노인과 환자, 다른 젊은이와 가난한 가정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한편으로 신학교의 오래된 픽업트럭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더 버틸까 의아해합니다. 이 픽업트럭은 교사들을 데려오고,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신학생들을 농장으로 태워가기도 합니다. 도로라고 할 수 없는 비포장길 위를 낡은 픽업트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교구장 멜키세덱 시쿨리 팔루쿠 주교는 새 사륜 구동차를 마련하기 위해 ACN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교회의 원동력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ACN은 약 44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북부 도리 교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헬 지대의 사막이 시작되는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교가 다수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많은 힘과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 간의 거리가 상당히 때문에 연대 의식을 느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곳 공동체가 신앙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교리교사들과 사제들이 마을을 방문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소형 오토바이입니다. **ACN은 사막 지역에서의 사목 활동을 위해 오토바이 11대의 구매 비용으로 약 2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 옥타비우스 신학교 신학생들



도리 교구의 교리교육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종교 간 대화

과거는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형제애적 관계가 그것을 몰아내도록 도와줍니다.

형제애적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르비브에 있는 **우크라이나** 가톨릭대학교의 교회 일치 연구소는 이러한 영성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간의 공통된 신앙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적의는 종종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이곳 연구소는 해마다 이틀간의 교육 과정을 4회 실시하며, 다른 10개 교구에서 회담과 워크숍을 가집니다. 다양한 교파의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교파의 전통과 성인들에 대해 배우면서, 지금까지 오히려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왔던 신앙의 형제자매들의 영성 생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그들은 상호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청하셨던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가 복음이 지닌 구원의 힘에 대한 증거가 되고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ACN은 이 평화의 대화에 약 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라과이라의 수호천사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미사 중에 바치는 이 기도가 베네수엘라에서는 간절한 청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 곧 이들의 삶이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모든 생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여 100만 볼리바르 지폐까지 발행되고,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습니다. 1년 전에 10달러였던 물건이 지금은 30달러가 넘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밀가루, 우유, 쌀도 부족하고 비누 등 전반적인 위생용품도 모자랍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이미 5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대부분 국경 너머 콜롬비아로 향했습니다. 최대 무역항인 라과이라 인근의 해안도시 마이케티아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의 펠리파 원장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 곁에 남을 것입니다.” 스페인 출신인 펠리파 수녀는 사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도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학교의 어린이들과 빈 냄비 앞의 어머니들, 약이 없는 환자들을 보살핍니다. 애덕의 선교 수녀회 소속 마리아 라리사 수녀는 인도 출신입니다. 9명의 동료 수녀들과 함께 라리사 수녀 역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어린이들을 곤경 속에 내버려둘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운증후군이나 다른 지적 장애를 가진 21명의 어린이들이 두 번이나 버림받는 일이 되며, 이들 중 대부분이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종 수녀회 소속 오피리아 수녀와 밀란즈 수녀 또한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본당에서 버려진 음

식과 빈 박스를 찾는 노숙인들을 돌봅니다. 본당은 라스 투니타스 거주지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구역에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나자렛의 성체 선교 수녀회 소속 아멜리아 수녀와 넬리다 수녀, 바바라 수녀는 카라야카에 있는 성 세바스티아노 본당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수녀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옷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의사 몇 명이 수녀들을 도와주며 응급 처치를 합니다. 무료 급식소 밖의 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라과이라 교구에서 활동하는 수녀는 총 10개 수도회 소속으로 모두 46명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은 이미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수녀들은 라과이라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 주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녀들은 매일 1유로(약 1300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구장 라울 비오르드 카스티요 주교가 수녀들의 생계 지원을 간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녀들이 그곳에 함께 있고, 베네수엘라인들은 수녀들의 얼굴에서 하느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심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마리아 수녀가 젊은이들에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 세바스티아노 본당의 무료 급식소, 어린이들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합니다.



하느님 섬리의 수녀회도 찾아온 이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아우렐리나 수녀. 영양 결핍은 혈액 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희망을 가져오는 교육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낳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명언은 어느 시대에도 어디든지 적용됩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익은 일자리를 찾는 것, 미래를 바라보는 것, 화해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현존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빌 가톨릭대학교의 사업이 이와 같은 수익을 낳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아르빌대교구에는 1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다에시’(IS)의 테러로 인해 피난을 떠났던 난민들입니다. 쿠르드 자치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현재 200명 가까이 되는 아르빌 가톨릭대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2022~23학년도 목표는 재학생 정원을 825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그리스도인 615명, 무슬림 125명, 야지디족 85명으로 학생들을 늘릴 것입니다.” 칼데아 가톨릭 아르빌대교구장 바샤르 마티 와르다 대주교는 지난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라크 사목 방문 때 이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아르빌의 그리스도인 구역인 앙카와에 있습니다. 보호와 치안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재무 행정, 컴퓨터 공학, 토목, 건축 등의 분야에서 학위를 받습니다. 가톨릭 사회 교육도 있으며, 의학과 교육학도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나 영국, 호주, 미국 대학과의 교류도 있습니다.



2021년 3월 7일 아르빌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가운데 와르다 대주교가 있다.



© CUE Erbil
신앙의 토대 위에서,
현대적인 교육 방식과 장비로

“우리의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수 집단인 그리스도인을 사회의 리더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을 통해 이라크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장기적인 터전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빌 가톨릭대학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자기 가치와 소속감이라는 중요한 감각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사실 아르빌대교구의 힘만으로는 이 사업의 재정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한 학년에 학생 한 명당 평균 약 32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국립 대학에만 투자하고 사립 대학에는 투자하지 않는데, 국립대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난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보내고자 하는 유혹이 큼니다. 하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의 차별과 고립 등으로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아르빌 가톨릭대학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 절반 이상이 젊은 여성이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의 질도 높습니다. 설립 5년 만에 이라크의 250개 대학 순위에서 4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CN은 아르빌 가톨릭대학교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20억 원에 달합니다.** 아르빌 가톨릭대는 이번 사업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교양은 마지막 1달러가 사라질 때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ACN의 이 마지막 1달러로 분명 아르빌 가톨릭대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교양이 채워지고, 가슴속에는 더 큰 희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의 현존이 이 두 가지를 보장합니다.



아르빌 가톨릭대학교(CUE)

세미나에서의 실습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저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선물하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선하신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모잠비크 북부의 사제들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 연미사를 봉헌하도록 미사 예물로 100유로(약 13만원)를 보냅니다. 언제나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수입은 50만 원 정도고, 제계 의존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느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고통을 겪는 이들에 비하면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 안에서 저는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에도 의지해 주십시오.

사업 파트너에서 후원자로

우리 수도원에 자동차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매달 후원하고자 합니다.

목주기도와 자동이체로

2021년 1월 29일 미사 중에 저의 지향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교 활동을 위해 자주 목주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도 할 것입니다.

감사함과 나눔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멋진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뻐했고 특히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치는 저녁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활동을 따라가면서 「사랑의 메아리」를 읽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종종 사소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와 소망들에서 눈을 돌려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여러분께 더 많은 힘과 아이디어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ACN 사순·부활 캠페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CN은 '종교적 극단주의로 상처받은 아프리카 교회를 치유하며'를 주제로 2021년 사순·부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에는 서울대교구 대신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본당과 수도회, 가정 내에서 ACN 십자가의 길 소책자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지부 또한 사순 시기를 마무리하며 서울 금호동성당에서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서울대교구 금호동성당

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 아프리카 위해 1713만원 기부

서울 방배4동 주임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와 본당 공동체는 사순 시기 동안 모은 '사랑의 나눔 주머니 봉헌금'을 ACN에 기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봉헌금 및 감사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봉헌금 17,130,000원은 ACN의 아프리카 지원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ACN 후원자의 날로 지정

ACN은 2021년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후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합니다. ACN이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활발한 지원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후원자분들의 자비로운 후원 덕분입니다. ACN은 이 날 전 세계 수천 명의 사업 파트너,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누어 주기를, ACN 후원자 여러분을 기억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리나이다." 후원자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 예수 성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2021년 6월 11일, TV 매일미사를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미사 중에 ACN 후원자의 날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모든 후원자분들은 CPBC가톨릭평화방송 시청으로 미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CN 국제 지도신부인 마르틴 바르타 신부의 서신과 영상 메시지 또한 같은 날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TV 매일미사
CPBC 편성표**

시간: 6시, 9시, 12시, 18시

6/11 금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교황청 재단 ACN 한국 지부장)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ACN 2021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ACN이 2년마다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출간하는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의 2021년판 보고서 요약집이 한국어로 6월에 발행됩니다. ACN의 국제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은 지난 4월, 유럽에서 이번 보고서를 처음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통받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박해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ACN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목소리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999년,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지 벌써 22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ACN 한국지부 발행 | A4 | 62쪽 | 비매품

2021 한국어판 보고서 요약집 신청하기

<https://bit.ly/ACNRFR21> (신청품을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신청 안내: 기본 1인 1권 무료 배포이며, 재고 소진 시 마감됩니다. 2021년 6월 중순 이후 일반 우편으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